

# 인간의 때문지 않은 순수 지향적 이야기



만남, 그 신비

‘소나기’ 황순원 제자 안영 작가 1968년 ‘가을, 그리고...’ 후편 팔순 노령 되돌아본 생애 행적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순수 지향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륜을 쌓은 세

대나 젊은 세대 모두 잠시 책에 머물러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충족하게 적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소나기’ 황순원 선생의 제자인 소설가 ‘안영’ 이 장편소설 ‘만남, 그 신비’를 출간했다. 책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로 50여 년간 편지를 주고 받으며 교류해 온 영적인 교류 이야기다. 안 작가가 1968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가을, 그리고 산사’의 후편이기도 하다. 작가는 인간의 내면 때문지 않은 순수 지향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가을 그리고 산사 글을 읽은 독자들이 주인공 민지환의 다음이야기를 궁금해 했어요. 실비아와 민지환은 영적 동반자로 반세기 동안 편지를 나누어왔죠. 이제 저는 삶을 비워야 할 시기에 놓였어요. 그 시점에서 그의 고매한 인격과 폭 넓은 지성, 영성이 담긴 편지지만



안영

삶의 무료함과 쓸쓸함을 느꼈던 실비아는 마음이 통하는 인간 대화자를 그리워 했다.

하지만 우연히 접어든 민지환의 일기를 읽은 순간 전율을 느꼈고 그의 삶을 응원하는 글을 남긴다.

이후 엇갈리는 듯 하면서도 이어지는 신비한 인연. 인생의 반세기 동안 민지환과 실비아는 좋아하는 책과 음악 종교 등 주요 공통 관

의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독자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소설로 엮게 됐습니다.”

작가의 삶이 투영된 주인공 실비아가 여행 중 우연히 찾은 암자에서 수도승 민지환의 일기를 읽게 되면서 책의 서막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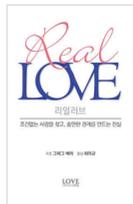
심사의 이야기를 하며 편지를 주고 받는다. 책 중간에는 영문 편지도 등장한다. 작가는 번역하지 않은 영문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 민지환의 영문 편지 속 단어를 해석하며 글을 읽던 당시 실비아의 감정을 독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다.

작가는 실비아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그대로 보여 준다. 어떤 경우보다도 열정적이지만, 어떤 경우보다도 순결한 영혼의 만남. 팔순 노령에 되돌아보는 생애의 행적이지만, 그 처연한 정감을 감싸 안고도 남는 온화한 열결성이 작품의 행간에 숨어 있다.

김종희 문화평론가는 “가을 그리고 산사로 시작되는 소설가 안영의 나의 영적 교류 이야기를 읽고 상태에서 읽었다”며 “이 소설에서 나는 문득, 성장기 이후의 일생을 살아낸 황순원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를 목격했다”고 평가했다. 레벤북스 303쪽. /이나라 기자

## 새책 나왔어요

◇리얼 러브=외과 의사이자 교사, 시민단체 지도, 기업가 등으로 바쁘게 살아온 작가가 그레고 베어. 그는 많은 성공과 부를 누렸지만 삶을 불행해하며 공허함을 느껴왔다. 오랜 시간 진정한 행복을 갈구하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온전히 행복으로 바꾼 몇 가지 원칙을 발견했다. 러브인크INK 361쪽.



◇긴 꼬리 연애=2000년 ‘세기문학’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성룡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 작가는 오늘날 도시사회에서 사람이 어떻게 왜소해지는지 우리에게 증언한다. 시종일관 삭막한 각자도생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거저서 밀려 나온 사회적 약자들의 살려주는 몸부림을 짚어내며 기록했다. 천년의 시작 104쪽.



◇씩 읽고 딱 아는 사자성어=제2회 서울국제만화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카툰 작가로 데뷔한 심자섭의 신작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 44개를 책한 권에 모았다. 직역과 의역을 곁들인 유니버스 형식의 만화를 읽다 보면 어려운 사자성어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예림당 183쪽.



◇이 구역 딸기는 내 거야=핀란드 시각 예술가 아이노 마이야 메트 솔라의 대표작이다. 좋아하는 딸기를 둘러싸고 생쥐와 달팽이 간 벌어진 사건을 통해 편견과 선입견 나눔과 양보 공존에 대해 살펴본다. 수채물감과 잉크 마커 등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아름다운 색감의 그림은 통해 모두를 매료시킨다. 별길 40쪽.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세네갈계 프랑스 작가 다비드 디옌의 2021년 부커상 인터네셔널 수상작으로, 원제는 ‘영혼의 형제’다. 한 세네갈 병사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료를 잃고 폭력과 광기에 휩싸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평범한 젊은이가 어떻게 악마 군인으로, 영혼의 주술사로 변모해가는지를 볼 수 있다. 희담 208쪽.



# 위기를 잡으면 기회가 된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간

“세계화와 돈의 논리만 생각하면 되던 시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를 중국이 감싸고 돌면서 그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투자자의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후폭풍 영향이 거지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의 순간에 놓였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경제 전

문가들은 ‘퍼펙트 스톰(경제 복합위기)’을 전망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모색 해보는 책이 출간됐다. ‘홍사훈의 경제쇼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홍반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다.

책은 홍사훈 기자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8명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고 방향에 묻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1부 7개 챕터, 2부는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경제를 알면 흐름이 보인다



글쓴이 참여 전문가도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리치오 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지호 에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풍부한 데이터와 역대 경제위기의 공통점, 탁월한 국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진단한다.

여기에 박병창 교보증권 영업부 부장, 염승

다’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현재를 심도 있게 설명한다. 제2부 ‘부의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주식 시장을 비롯해 돈의 흐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박세의 체슬리투자자문 대표가 경기반등과 함께 치고 나갈 전도유망한 분야를, 어려울수록 잊지 말아야 할 자산투자의 원칙과 팁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저자인 홍사훈 기자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세계화’의 이름 아래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공생 관계였지만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대 러시아·중국 사이 정치·경제적인 골이 깊어지며 공급망이 해체되고 불확과 불투명 사이에 끼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원자재·식량이 무기가 된 가운데 설상가상 인플레이션 부담까지 더해지는 변화에 대처하는 시야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가북스 270쪽. /이나라 기자

# 문체부, 내일부터 일본서 ‘찾아가는 도서전’

국내 출판사 20곳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출판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을 오는 28~29일 도쿄 파크하얏트도쿄에서 개최한다.

2015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찾아가는 도서전’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출판저작권 수

출상담 행사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됐으나 이번 일본 도서전은 대면 행사로 열린다.

일본 대표 출판사 분게이슌주, 각겐, 포푸라사와 일본 최대 해외 저자권 중개회사 터틀모리에이전시 등 현지 출판사 35곳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문학동네, 천재교육, 미래엔, 다산북스 등 20곳이 참여하며, 출판저작권 중

개회사 제이엘콘텐츠에이전시가 국내 위탁 도서 270여 종의 수출 상담을 대행한다.

28일에는 일본 출판시장을 소개하는 세미나도 두 차례 열린다. 일본출판협회와 일본아동도서협회 관계자가 일본 출판시장 현황과 경향을 소개한다.

일본은 출판시장 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최근 한류 영향에 힘입어 한국 도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와 ‘서른의 반격’은 각각 2020년과 올해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일본에서 28만부, 김수현의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50만부 이상이 판매됐다.

최근 현지에서 한국 작가 에세이가 10~20대의 공감을 얻으며 독자층을 넓히고, 한국 도서가 연극·만화 등으로 재가공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한국 작품이 알려져 일본 독자층의 지면을 넓히고, 한국 출판 콘텐츠가 2차 상품으로 개발되는 등 출판 한류에 속도가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출출이 좋아요"... 외식업계 올상

“만성질환 예방, 생활수칙 꼭 지켜”

전남농협 협소계 축산농장 앞장

“반년 동안 가장 큰 변화”

올해 10월 10일 “구체화”

“반년 동안 가장 큰 변화”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